

# 39-27 맞아? 화끈해진 태권도 잔치

##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현장리포트

이대훈-카이르백 맞대결 총 66점 기록  
몸통공격 차등 배점·머리 회전공격 4점  
경고 없는 감점 제도도 고득점에 한 몫



39-27. 핸드볼 스코어가 아니다. 26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68kg급 32강전에서 나온 점수다. 이대훈(25·한국가스공사)과 예라실 카이르백(카자흐스탄)의 맞대결에서 총 66점이 나온 것이다.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고득점 경기가 속출하고 있다.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 한 선수가 30점 이상 뽑아내는 경기가 속출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는 개정된 경기규칙의 효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11월16일(한국시간) 캐나다 버나비에

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경기규칙 및 규약이 이번 대회에 적용됐다. 기존의 1점이던 몸통공격의 배점이 차등을 뒀다. 주먹 몸통공격은 1점을 유지했지만, 발 몸통공격에 2점을 주기로 했다. 몸통 회전공격과 머리공격은 3점, 머리 회전공격에는 4점을 부여한다. 한번에 4점을 잃을 수도 있는 터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날 여자 67kg급의 김잔디(용인대)가 폴리나 칸(러시아)과 16강전 2라운드에서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3점짜리 머리공격으로 흐름을 바꾸며 역전승을 따낸 것이 좋은 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감점 제도가 강화돼 방어 자세를 취하기도 어려워진 것도 고득점과 꺾을 같이한다. 기존에는 한 차례 경고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곧바로 감점된다. 감점 10점이면 점수에 관계없이 패배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앞발 동작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의미 없이 다리를 올리거나 유효타를 막기 위해 허공에 헛발질을 하는 행위가 3초간 이어지면 곧바로 감점된다. 이 경우 상대 선수에게 1점이 주

어진다. 상대의 발차기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다리를 올리거나 허리 아래쪽으로 다리를 들어도 안 된다.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 도중 발차기 준비 자세를 취하다가도 감점을 의식해 곧바로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 여자 67kg급 세계랭킹 1위 누르타르(타키)는 마테야 엘리치(크로아티아)와 8강전에서 3-4로 패색이 짙었지만, 종료 6초를 남기고 상대 감점에 편승해 연장 끝에 승리를 따냈다. 이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의미다.

WTF 관계자는 “태권도가 역사이렇게 바뀌었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에 새로운 경기규칙을 적용하고 보완할 점은 2020도쿄올림픽에 앞서 수정할 것이다. 좀처럼 점수가 나지 않아 ‘발 펜싱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경기규칙을 개정할 것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점수도 많이 나오고 있어 확실한 효과를 보는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대훈은 “경기규칙이 개정되고 나서 선수들이 한층 액티브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무주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이대훈(오른쪽)이 26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2017세계태권도선수권 남자 68kg급 8강전에서 카자흐스탄 예라실 카이르백과 경기를 하고 있다. 무주 | 뉴스1

## 이대훈·김잔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4강행

이대훈(25·한국가스공사)과 김잔디(22·용인대)가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확보했다. 이대훈은 26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68kg급 8강전에서 아블파즐 야구비주이바리(이란)를 15-11로 꺾고 4강에 안착했다. 세계선수권에선 4강 진출시 자동으로 동메달을 확보한다. 이로써 2011년 경주,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데라 63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대훈은 세계선수권 68kg급에서 첫 금메달에 도전하게 됐다.

2016리우올림픽 남자 68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이대훈은 세계선수권 우승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당시 패배를 안겼던 아흐마다

야부가우쉬(요르단)에 설욕할 기회이기도 했다. 8강전 직후 “아직까지는 생각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낸 그는 개정된 경기규칙에 맞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락차이 하우이홍통(태국)과 64강전을 34-10으로 끝냈고, 예라실 카이르백(카자흐스탄)과 32강전에선 난타전 끝에 39-27로 이겼다. 에디발 폰테스(브라질)와 16강전에서도 25-7의 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16강까지 3경기에서 총 98점을 몰아치며 공격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줬다. 야구비주이바리와 8강전에선 2라운드까지 10-11로 끌려갔지만, 3라운드에서 2차례 결정적인 발 몸통공격을 성공하며 상대를 제압했다.

무주 | 강산 기자

이대훈, 체급상향 후 첫 금메달 도전  
김잔디, 여자 67kg급 첫 메달 확보

김잔디는 이번이 속출한 여자 67kg급에서 4강에 안착해 세계선수권 첫 메달을 확보했다. 빅토리아 에레디아(멕시코)와 32강전 17-6의 순쉬운 승리를 거둔 김잔디는 16강전에서 폴리나 칸(러시아)을 14-8로 꺾었고, 8강전에서도 난타 패리다 이지조바(아제르바이잔·5번시드)를 7-0으로 완파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이 체급에선 2번시드 장자자(대만)가 장명위(중국)와 32강전에서 5-15로 탈락해 완패하는 등 이번이 이어졌다.

한편 이대훈과 김잔디의 4강전은 2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대훈은 블라디미르 탈라클리에프(불가리아), 김잔디는 1번시드 누르타르(타키)와 결승진출을 다툰다.

무주 | 강산 기자



남자농구국가대표선수들이 26일 진천선수촌 내 체육관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대표팀은 다음달 레바논에서 열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 대비해 소집훈련에 돌입했다. 진천 | 정지욱 기자

## ‘열악한 환경’ 남녀 농구대표팀의 상부상조

대표팀 전용훈련장 없어 진천선수촌 사용  
훈련 불편 최소화 위해 1주씩 나눠 쓰기

농구는 대표적인 겨울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여름에도 쉬지 않는다. 국가대표팀의 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남녀농구대표팀이 모두 소집돼 있다. 아직까지는 대표팀 전용훈련장이 없어 진천선수촌을 사용하고 있다. 여자대표팀은 5일 진천선수촌에서 소집돼 3주차 훈련에 돌입했고, 남자대표팀은 25일 모였다. 진천선수촌 농구체육관은 1곳뿐이다. 이를 나눠서 써야 한다.

훈련장 중복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4인천아시아대회를 준비하던 남녀농구대표팀은 2개월여간 합숙기간이 겹쳤다. 당시 남자대표팀 유재학(모비스) 감독과 여자대표팀 위성우(우리은행) 감독도 훈련시간을 서로 조정해 진천선수촌 내 농구체육관을 함께 사용했다.

이번에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자대표팀 허재 감독과 여자대표팀 서동철 감독이 1주씩 훈련장을 양보하기로 했다. 남자대표팀은 26일부터 1주일간 진천선수촌을 사용한다. 이 기간 중 여자대표팀은 상주로 이동해 상주체육관에서 합숙훈련을 한다. 다음주에는 여자대표팀이 진천선수촌을 사용하고, 남자대표팀은 원주에서 훈련한다. 남자대표팀은 프로농구 동부구단의 협조로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전술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감독은 “훈련시간을 쪼개서 체육관 한 곳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서 감독이 이번 주에는 연습경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서로 훈련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일주일씩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가 원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사흘 정도 진천에 머무르고 월리엄존스컵을 위해 대만으로 나간다. 사흘 정도는 시간을 조정하면 체육관을 잘 나눠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허재 감독 “존스컵 9일간 8경기…선수폭 넓어야 돼”

오세근 등 15명 2주간 체력·전술 훈련  
부상선수 많아 양홍석 등 신예기용 염두

허재(52)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팀은 25일 진천선수촌에서 소집돼 훈련에 돌입했다. 대표팀은 8월 8일부터 20일까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펼쳐질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을 앞두고 양희종, 오세근(이상 KGC), 김선형(SK), 김종규(LG) 등 15명의 선수들로 구성됐다. 2주간 국내에서 체력 및 전술훈련을 소화한 뒤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월리엄존스컵대회에 출전해 전력을 점검한다.

이번 소집에 앞서 1.5진급으로 꾸려진 대표팀은 6월 초 일본 나가노에서 벌어진 동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왔다. 허 감독은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인상적 활약을 펼친 이대성·전준범(이상 모비스), 허훈(연세대)을 이번 대표팀에도 포함시켰다. 허 감독은 26일 훈련에 앞서 “젊은 가드진과 슈터 보강이 필요했는데 허훈, 이대성, 전준범의 활약

이 괜찮았다. 이번에는 다른 구성으로 대표팀을 꾸렸기 때문에 존스컵대회에 나가서도 활동도를 테스트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대한농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와 허 감독은 중앙대 1학년생인 양홍석도 이번 대표팀에 포함시켰다. 허 감독은 “존스컵에서 9일간 8경기를 치른다. 거의 쉬지 않고 경기를 뛰기 때문에 선수 기용폭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 앞서 거론한 선수들(이대성·전준범·허훈)과 양홍석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시험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선수들이 많다. 허 감독은 “소속팀에서 훈련을 해온 몇몇 선수들을 빼고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다. 훈련소에서 막 퇴소한 3명(이승현·임동삼·허웅)도 몸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양희종은 손등 골절이 있어서 빠져야 할 것 같다. 일단 일주일간 체력훈련을 해보고 존스컵 명단에 넣을지를 고민해야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진천 | 정지욱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우승 벙커샷 후 골프팬 진정시킨 ‘스피스의 품격’

트래블러스챔피언십 12언더파 268타 우승  
연장전 상대 버거 위해 팬들에게 매너 당부

조던 스피스(23·미국)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인성이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다. 실력도 두 말할 나위없다. 트래블러스챔피언십(총상금 680만달러·우승상금 122만 4000달러)을 통해 재확인됐다. 26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리버하이랜드(파70)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스피스와 다니얼 버거(미국)는 정규 라운드에서 나란히 합계 12언더파 268타를 쳐 연장에 돌입했다. 대학시절부터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여서 그런지, 연장임에도 긴장감은 엷보이지 않았다. 18번홀에서 연장 1차전이 시작됐다. 먼저 티샷을 한 버거의 공이 페어웨이 왼쪽 깊은 러

프에 떨어졌다. 이어 스피스가 친 공은 왼쪽으로 날아가다 나무를 맞고 페어웨이에 멈췄다. 둘은 나란히 2번째 친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리지 못했다. 스피스의 공은 벙커, 버거의 공은 그린 뒤쪽 짧은 잔디 위에 놓였다. 스피스가 먼저 벙커에서 공을 쳐냈다. 그린에 떨어진 뒤 3~4번 구른 다음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18번홀 그린을 가득 메운 갤러리의 환호가 쏟아졌다. 챔피언이 되기에 충분한 샷이었다. 스피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캐디와 몸을 부딪치며 좋아했다. 버거가 다가와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쟁자였지만 멋진 승부를 만들어낸 동료로 향한 존경심이 었다. 팬들의 환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버거가 공을 홀에 집어넣으면 다시 연장을 치러야 했다. 이 때 스피스는 팬들을 진정시켰다. 두 손을 아래로 흔들며 팬들에게 조용히 해주기를

바랐다. 경쟁자를 위한 배려였다. 아쉽게 버거의 공은 홀을 벗어났다. 버거는 모자를 벗고 스피스에게 악수를 청했다. 스피스는 이번 우승으로 통산 10승째를 달성했다. 만 23세 11개월인 그는 PGA 투어 역사상 만 24세 이전에 10승 고지에 오른 2번째(1983년 공식기록 이후) 선수가 됐다. 스피스보다 먼저 기록을 세운 선수는 타이거 우즈(미국·만 24세 이전 15승)뿐이다. 2월 AT&T페넬비치프로암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스피스는 2승째를 따내며 저스틴 토머스,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3승), 마쓰야마 히데키(일본·2승)에 이어 시즌 4번째 다승자가 됐다. 한국선수들이 부진을 보인 가운데 뉴질랜드 동포 다니 리는 합계 10언더파 270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안병훈은 공동 6위(1오버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

주요로 기자 na1872@donga.com



조던 스피스가 26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리버하이랜드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래블러스챔피언십에서 통산 10승째를 달성한 뒤 우승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크롬웰(미 코네티컷주) | AP뉴스